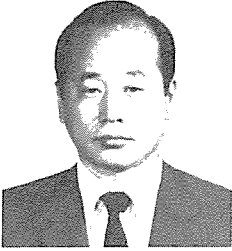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낙농 현황과 전망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과장 이인형

## 1. 머리말

수천년간 미곡 위주의 식생활 문화를 유지해 오던 우리 민족에게 비교적 대중적으로 우유가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1937년 경성우유협동조합(현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전신)이 설립되면서 부터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960년대 초반 국가경제발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부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차관도입에 의한 유가공장 건설과 젖소도입 및 대규모 산지개발에 의한 목장조성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낙농산업을 지난해인 1989년과 20년전인 1969년을 비교해 보면 다음표에서와 같이 국민 1인당 우유소비량은 1.1kg에서 38.7kg으로 35배, 총 우유소비량은 35천톤에서 1,642천톤으로 47배 젖소사육농가 호수는 2천3백호에서 35천호로 15배 젖소사육두수는 16천두에서 515천두로 31배 증가하므로써 타 산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속 성장을 이루었으며 국민 식생활의 개선에 일익을 담당한 것은 물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 하였다.

주요 낙농산업 추이

구 분	단위	'69	'74	'79	'84	'88	'89
젖소사육두수	천두	16.5	59	156	327	480	515
호수	천호	2.3	7.4	17.2	37.6	35.7	36.0
호당사육두수	두	7.2	8.0	9.1	8.7	13.5	14.3
우유 소비량	천톤	35	127	374	834	1,652	1,642
(1인당소비량)	kg	1.1	3.7	10.0	20.6	39.4	38.7
우유생산량	천톤	32	125	381	841	1,632	1,762
두당산유량	kg	3,134	3,473	4,509	4,747	5,111	5,316

이렇게 고속성장을 이룩한 낙농산업이 근래 심각한 분유체와 현상으로 인하여 사람도 먹기 어려운 분유를 송아지와 돼지에게 먹일 수 밖에 없게 되고 심지어는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버리기도 하였고 분유 5,000톤 정부수매라는 최후의 방법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러 있어 낙농가와 유업체 그리고 정부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토록 어려워지게된 원인을 살펴보고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 봄과 아울러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분유 체화의 원인

우유는 그 특성상 젖소로부터 착유한 이후 세균 번식 활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여 집유장으로 수송되어야 하고 빠른 시간내에 살균등 가공처리 하지 않으면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시유등 유제품으로 사용되고 남은 우유는 치즈나 분유로 가공하여 재고상태로 보관해야 하는데 치즈의 소비량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전지분유나 탈지분유로 보관하고 있다. 유업체에 보관하는 분유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유업체는 재고부담에 따른 자금난으로 인하여 농가로 부터의 집유기피, 유대체불 및 유대 대신 분유지급에 의한 유업체와 농가간의 마찰 등 분유체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분유체화의 원인은 보통 생산(공급)과잉이나 소비둔화, 또는 양자가 함께 발생되어 야기되며 '80년대 들어 분유체화현상이 3회 있었는데 그 처음이 '80-'81 기간중이며 두번째는 '85-'87기간중이고 세번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이다.

첫번째인 '80-'81 기간중의 분유체화 현상은 '79년도에 수급조절용으로 수입한 분유가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감소로 소진되지 않은 채 '79년 이전에 도입한 젖소로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원유가 과잉공급되므로서 전형적인 공급과잉과 소비감소가 중복된 분유체화 현상을 보여 주었다. 특기할 사실은 이때('80년)부터 축산진흥기금의 지원에 의한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85-'87 기간중인데 이때는 젖소 및 분유 수입에 의한 공급과잉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85년초의 독극물 투입사건에 따른 일시적인 소비둔화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기간중의 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17%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비수준을 1~2%의 수준을 상회하는 생산증가가 분유체화의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세번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89하반기 부터의 수급불균형 현상은 먼저의 두경우와는 달리 소비둔화가 주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둔화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노사분규및 수출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이상구식 건강이론에 따른 일부계층의 유제품 기피현상, 진짜우유시비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신감 그리고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시유등 유제품 소비가 가격의 연쇄적이고도 대폭적인 인상이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용유(시유)와 버터·치즈등 가공유의 소비 비율이 77:23으로서 일본의 5:50, 구미 국가의 30:70 수준에 비해 음용유 위주의 소비구조로 되어 있어 소비둔화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데다 시유소비량 또한 31kg 수준에 있어 일본의 38kg와 비교할 때 어느정도 한계점에 도달해 있지 않는가 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으며, 국민의 기호에 맞는 유제품 개발 보급보다는 마진이 높은 유음료개발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유업체의 자세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지정가격으로서 경직된 원유가격 체제, 집유선 다원화에 따른 자체 원유검사제도 때문에 상존하는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상호 불신 또한 농가불만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89. 4. 1. 원유가격 13% 인상에 따른 농가의 젖소도태 기피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89년 젖소 도태두수 65천두, 도태율 13.5%는 '88년 도태두수 80천수, 도태율 17.2%에 비해 도태두수나 도태율면에서 많이 부진했음도 사실이나, '89년의 우유생산 증가율이 8%로서 예년의 20% 수준에 육박하던 생산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생산증가는 상대적인 숫자일 수 밖에 없고 초유의 마이너스 0.6%증가를 기록한 소비둔화가 지금의 분유체화를 야기시킨 주원인이라 하겠다.

### 3. 우유수급 불균형 해소대책

그동안 정부는 당면한 분유체화의 해소를 위해 송아지 및 어린돼지 사료용으로의 분유 염가공급 4,500톤, 대농가 유대지급의 원활을 위한 원유대 지급자금 200억원의 지원, 불법유통의제 유제품의 단속, 코코아 분유등 우유소비를 잠식하는 품목의 수입억제, 우유두부 및 스낵류등 분유를 이용한 식품개발지원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분유수매 5,000톤, 유업체 자체적인 분유 3,000톤 및 버터 2,000톤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두자리 숫자의 소비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의 현상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유업체와 낙농가의 공동자구노력이 필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유업체는 소비확대 캠페인 전개등 우유소비 공동홍보를 적극추진하고 정부지원액 26억원을 활용 각급 행정기관과 유관단체의 협력을 받아 학교우유급식을 최대한 확대 하여야 하며, 우유소비의 지역별·소득수준별 실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우유소비 침투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단체급식의 개발등 대량 소비처를 발굴해야 하며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등 우유소비 확대를 위하여 전력투구함은 물론, 음용유를 잠식하는 유음료 개발보다는 원유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유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낙농가는 금년도 목표인 140천두의 도태를 위한 적극적인 젖소도태 참여와 조사료 위주의 사육과 젖소개량 그리고 성력 사양관리를 위한 기계화등으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소비수준에 알맞는 량의 질 좋은 우유를 생산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당면 대책 이외에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낙농체도의 개선을 위하여 낙농진흥법을 개정함으로써 축·낙협으로 집유와 원유 검사업무를 일원화하고 “낙농진흥 사업회를 설립하여 원유가격의 자율결정과 집유된 원유의 배분, 원유의 성분·위생상태·계절별·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원유의 품질에 상응하는 원유대를 받도록함과 아울러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뿌리 깊은 불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 4. 향후 전망

정부와 유업체 그리고 낙농가가 당면 분유체화 해소를 위하여 맡은바 역할을 순조롭게 추진할 경우 금년 말의 분유재고는 8천톤(분유수매 5천톤 포함시는 13천톤) 수준이 되고 분유재고가 가장 많을 시기인 '91년 3월에는 15천톤 정도를 유지하게 되어 '91년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우유수급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GATT BOP 졸업에 따라 어떤 방식이든 어느 정도 단계적인 축산물 수입개방이 필연적이고, 심해져가는 농촌인력 구득난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수처리 문제를 감안할때 앞으로는 가족노동위주의 전업규모농가가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와 기계화를 이루어야만 대내외적인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차적인 초지공영개발에 의한 낙농단지조성등 최대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유업체도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현재의 유제품 유통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양질의 유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만 우유소비가 계속 증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정부와 유업체 그리고 낙농가는 앞으로도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